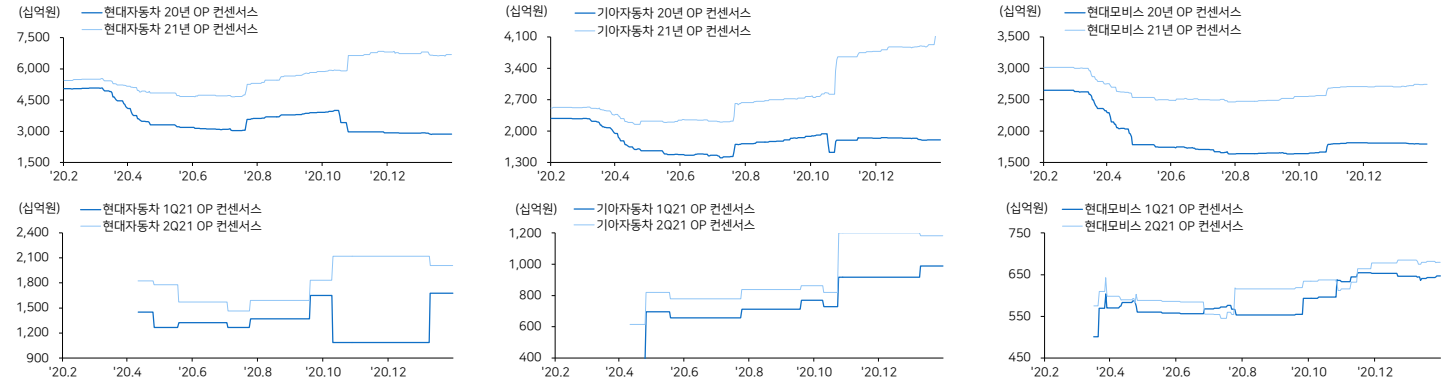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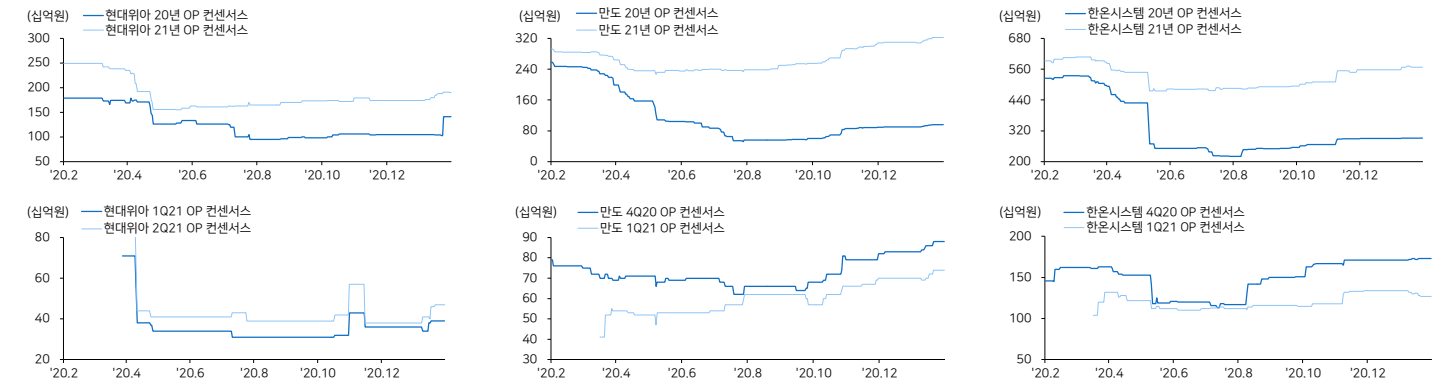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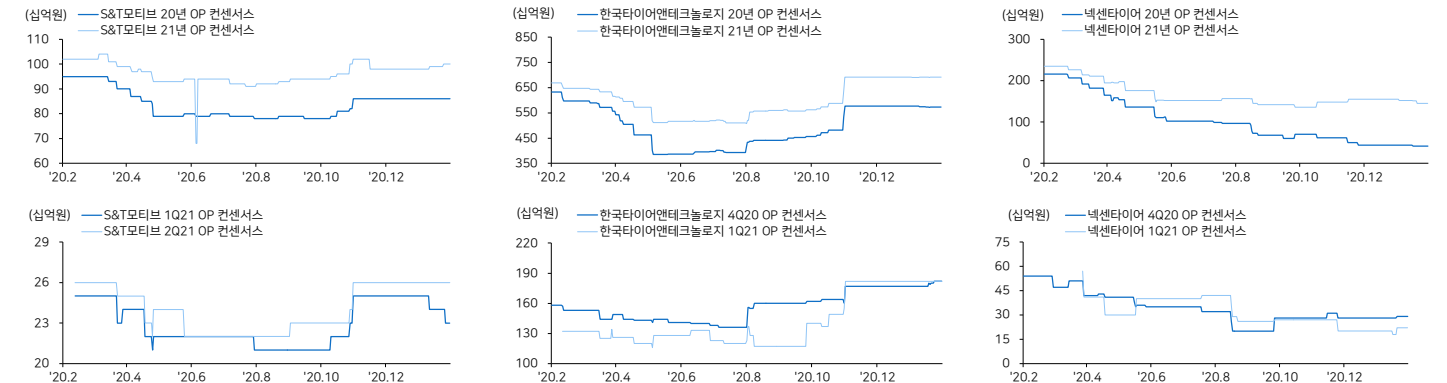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SK, 20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동맹 (한국일보)

현대자동차가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강화. 현대차가 차사 3번째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7'에 탑재될 배터리를 20조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제품을 납품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로써 'E-GMP'와 관련된 수주에서만 30조원 이상을 확보.

<https://bit.ly/3r8Xra5>

정의선 현대차 회장, 계열사 시너지로 전기차 선점 '착착' (한국금융)

현대차가 전기차 업계로 도약하기 위해 분주. 현대차의 고민은 미래차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IT 기술을 확보하면서 기존 강점인 대량 제조 능력을 발휘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사업으로 줄어들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해 투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

<https://bit.ly/2L4sp9F>

노조에 막힌 현대차 온라인 후판대 (한국경제)

수입차들이 잇따라 '판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만은 '무풍지대'. 판대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 영업적으로 구성된 판대 노조는 온라인 채널에서 차량을 판매하면 실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음.

<https://bit.ly/3j3ltpX>

반일 불매 운동도 도요타-혼다가 중국시장 협선 비결은 (매일경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의 돌풍이 무섭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 5대 중 1대는 일본차였을 정도. 반일 감정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업체들이 빠르게 부활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으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꼽히고 있음.

<https://bit.ly/3cctHvP>

제네시스, '파생형 전기차' 확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 특히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뿐만 아니라 파생형 전기차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출원.

<https://bit.ly/3t7Tmtt>

"미래차는 달리는 IT기기"...현대차 '새로운 생태계'에 주목 (한국경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상승 국면을 그릴 때 관련 협력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자율주행차 개발도 가속화되면서 밸류체인도 변화하고 있음.

<https://bit.ly/36ry54Y>

자동차연구원 "차량용반도체 국내 생태계 미약...선택·집중해야"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 국내 업계가 설계·생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현재 내연기관의 반도체 수는 200~300개이지만, 자율주행차(3세대)에는 2천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

<https://bit.ly/2NJL2ka>

미국·중국·일본 빅테크 3사...자동차회사 위협 (미디어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내노라하는 IT기업들이 진출을 선언중. 기존 자동차의 개념보다 스마트폰과 같은 IT기술력이 미래경쟁력을 판가름 하는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

<https://bit.ly/3crD8p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